

여대생의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 조사

이현교¹⁾ · 송 용²⁾ · 강남미[†]

¹⁾건국대병원, ²⁾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A Survey of Fema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Hyun-Kyo Lee¹⁾, Yong Song²⁾, Nam-Mi Kang[†]

¹⁾Konkuk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²⁾Department of Trad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t, Konkuk University, Chungju, Korea

Abstract

Breastfeeding is an ideal approach for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babies, as well as recovery of mothers. A breastfeeding education for female students seems to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increase the Korean women breastfeeding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ir knowledge, attitudes, and other related breastfeeding variables for developing a design for a pre-parental breastfeeding educational information for Korean female students of childbearing age. The sample consisted of 205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ranging in age from 20 to 25 years old. In this stud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cluded 6 pages with close-ended multiple-choice questions, and included a cover page with 15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experiences related to breastfeeding. Data analysis was done utilizing inferential statistics using SPSS 12.0 computer program. The findings indicated that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s should focus on the practical aspect of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and that educational information design should focu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breastfeeding for all levels of students' education by nurses. Therefore, education for female college students seems to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increase breastfeeding rate. This study is useful for descriptions of educational activities to help female students develop positive attitudes to breastfeed, to help these students have confidence toward breast-feeding in future by providing correct information and practical techniques on breastfeeding.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3) : 367~373, 2008)

KEY WORDS : breastfeeding · knowledge · attitude · female college students

서론

모유수유는 유방암 등 질병으로부터 보호효과를 나타내며, 아기들의 질병이환률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의료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overty 1991). 우리나라에서 모유수유의 경제적 효과는 엄마 젖을 6개월간 먹으면 618,300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Hyun 등 2002). 모유수유가 면역력을 키우고, 난소암·유방암 발병률도 낮춘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경제적인 이득이 인지되면서 2001년 9.8%, 2003년 16.5%, 2006년 24.2%, 2007년 37.4%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유수유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모유수유율은 1985년 59%에서 1997년에는 14%로 감소했으며, 2001년 연구조사(Hyun 등 2001, 2002)에서는 1개월에서의 모유수유율이 약 57%였으나 3개월에는 약 40%, 6개월에는 33%, 12개월에는 1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모유수유 실천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들과 일반대중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신념과 권장부족으로 밝혀졌다(Kang 등 2000a).

접수일: 2007년 10월 22일 접수

채택일: 2008년 6월 17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Nam-Mi Kang,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t, Konkuk University, Chungju 380-701, Korea

Tel: (043)840-3958, Fax: (02)450-4063

E-mail: nmkang03@kku.ac.kr

또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은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양과 정보에 대한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Williams & Hammer 1995; Kang 등 2000b; Kim 등 2002a). 특히,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가 약하여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거나 쉽게 중단하게 된다. 즉, '모유의 영양가가 분유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1.7% 뿐이라는 보고(Hyun 등 2001)는 분유회사의 지나친 상업성 광고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조제분유의 광고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규약으로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모유의 우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모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예비 어머니인 여대생들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은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태도의 유형에 따라서 어머니의 모유수유 실천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모유수유의 장단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데, 부정적 태도의 형성은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ouston 1986; Jeong 1997). 즉, 모유수유와 관련된 의지, 자신감, 지식의 부족 또는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태도 등은 모유수유를 어렵게 만들거나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모유수유 지식수준과 모유수유 실천과는 상관이 있음이 밝혀진 바, 모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이 임신 전부터 실시된다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차후에 모유수유를 선택하는 비율을 더 높힐 수 있다(Kim 등 2002b). 또한, 모유수유 동기와 모유수유 결정시기는 어머니 본인에 의해서, 그리고 임신 전에 대부분 결정되므로(Leffler 2000; Kang & Song 2005), 결혼 전 여성, 미래에 어머니가 될 십대 청소년시기 부터,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확대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ffler 2000; Martens 2001).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가 되어 모유수유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잘 시행한다면 올바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훗날 모유수유를 실천해야 할 시기에 본인 스스로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ens 2001; Goulet 등 2003).

모유수유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로는 모유수유에 관한 의료인과 임산부들의 지식과 태도, 모유수유 실패요인 등 주로 임산부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Kang 등 2000a, 2000b; Kang & Song 2005)이었으며, 미혼여성 특히 일

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차 모유수유 동기가 생겨 모유수유를 결정하게 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여대생을 위한 모유수유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 지식정도와 태도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수집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에 관한 자료를 이차분석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K대학교 서울과 지방캠퍼스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구두로 동의를 얻은 후에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소 15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분석 가능한 자료로 회수된 205명의 여학생 자료를 이차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모유수유 지식 (Breastfeeding Knowledge)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Williams와 Hammer(1995)가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체 56문항, 수유의 해부와 생리, 모유수유의 이점, 모유수유 금기 및 저해 요인, 모유수유 시도, 유두 동통의 예방 및 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사정, 모유수유의 보조기구 사용, 특별한 상황관리, 모유 짜기와 보관의 9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47문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9문항은 여러 개의 보기 중 정답을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2$ 으로 나타났다.

2) 모유수유 태도 (Breastfeeding Attitudes)

모유수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eong(1997)가 초산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유수유 태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Likert 3점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아니다' 0점, '모르겠다' 1점, '그렇다' 2점으로 점수화하였

다. 20문항(인지적 관점: 7문항, 정서적 관점: 6문항, 실제적 관점: 7문항) 중 긍정적 문항은 11개, 부정적 문항은 9개로 인지적 관점: 1~7, 정서적 관점: 8~13, 실제적 관점: 14~20)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0$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 < 0.05$, $p < 0.01$ 유의수준에서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계열은 의학계가 37.3% (76명), 비의학계가 62.7% (128명)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36.0%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이 30.0% (61명), 4학년이 21.7% (44명), 2학년이 12.3% (25명) 순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2 (± 1.7)세 이었다. 종교가 없다는 대상자가 33.0%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기독교 26.6% (54명), 불교 20.7% (42명), 천주교 17.7% (36명), 기타 2.0% (4명) 순이었다.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는 모유수유가 60.8% (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혼합수유 24% (49명), 인공수유 11.3% (23명) 순이었다. 주변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을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78.5% (161명), 아니오로 대답한 대상자는 21.5% (44명)이었다. 모유수유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2.4% (128명),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37.6% (77명)이었다 (Table 1).

2. 여대생의 모유수유 지식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정도는 56점 만점에 평균 17.51 (± 6.13)점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의 정도는 의학계가 18.76 (± 7.07)점, 비의학계가 16.67 (± 5.2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2.156$, $p = 0.033$). 학년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의 정도는 1학년이 15.89 (± 5.21)점, 2학년 17.24 (± 5.75)점, 3학년 18.45 (± 5.87)점, 4학년 18.30 (± 7.5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 = 1.732$, $p = 0.163$). 종교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의 정도는 종교 없음이 17.46 (± 5.72)점, 기독교 16.10 (± 7.17)점, 불교 18.30 (± 5.32)점, 천주교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205)

characteristics		N	Percent (%)
Age	Mean (\pm SD)	22.23 (\pm 1.69)	
Major	Medicine	76	37.3
	Non- Medicine	128	62.7
Grade level	1st	61	30.0
	2nd	25	12.3
	3rd	73	36.0
	4rd	44	21.7
Religion	None	67	33.0
	Protestant	54	26.6
	Buddhist	42	20.7
	Catholic	36	17.7
	Others	4	2.0
Own feeding type	Breastfeeding	124	60.8
	Artificial feeding	31	15.2
	Mixed feeding	49	24.0
Breastfeeding	Yes	161	78.5
Observation experience	No	44	21.5
Breastfeeding Education	Yes	128	62.4
	No	77	37.6

18.61 (± 6.57)점, 기타 18.33 (± 0.5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 = 0.887$, $p = 0.473$). 성장기 모유수유 형태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의 정도는 모유수유 그룹 16.96 (6.45)점, 인공수유 그룹 20.00 (± 4.74)점, 혼합수유 그룹 17.64 (± 6.12)점, 모르겠다는 그룹이 18.43 ± 4.20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 = 1.307$, $p = 0.274$). 주변사람이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의 정도는 경험이 있는 그룹이 17.35 (± 6.18)점, 경험이 없는 그룹이 18.05 (± 6.0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 = -0.612$, $p = 0.541$).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유무에 따른 지식의 정도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이 17.35 (± 6.18)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그룹이 18.05 (± 6.0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 = 0.375$, $p = 0.541$) (Table 2). 전공계열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유수유 지식의 하부영역별로 차이를 검정해본 결과 구체적으로 하부영역의 모유수유 지식정도는 9개의 영역중 7개영역에서 의학계 학생이 비의학계 학생보다 높게 나왔으며 모유수유의 이점과 모유수유 신생아의 사정에 관한 지식 항목에서는 의학계 학생보다 비의학계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3. 여대생의 모유수유 태도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1.51 (± 0.47)점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에 따라 평균을 조사한 결과 인지적 관점 영역의 점수가 1.55(± 0.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적 관점 영역이 1.47(± 0.53)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4).

본 연구대상자의 모유수유 태도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20문항 중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한다”는 문항이 1.98(± 0.17)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유를 먹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수유 방법이다”는 문항이 1.96(± 0.21)점으로 높게 나왔고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아기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문항이 1.96(± 0.29)점으로 “모유를 먹이는 것은 효과적이다”는 문항 1.96(± 0.29)점과 동일하게 같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유 수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모유 수유 태도의 차이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모유 수유태도는 의학계가 30.48(± 4.86)점, 비의학계가 30.10(± 3.05)

Table 2. Differences in breastfeeding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Mean ± SD	t or F	p
Major	Medicine	76	18.76 ± 7.07	2.156	0.033
	Non-Medicine	128	16.67 ± 5.27		
Grade Level	1st	61	15.89 ± 5.21	1.732	0.163
	2nd	25	17.24 ± 5.75		
	3rd	73	18.45 ± 5.87		
	4rd	44	18.30 ± 7.51		
Religion	None	67	17.46 ± 5.72	0.887	0.473
	Protesta	54	16.10 ± 7.17		
	Buddhis	42	18.30 ± 5.32		
	Cathol	36	18.61 ± 6.57		
	Unaffiliat	4	18.33 ± 0.57		
Subject-own Feeding type	Breastfeeding	124	16.96 ± 6.45	1.307	0.274
	Milkfeeding	31	20.00 ± 4.74		
	Mixed feeding	49	17.64 ± 6.12		
	No-memory	8	18.43 ± 4.20		
Breastfeeding Observation	Yes	161	17.35 ± 6.18	-0.612	0.541
	No	44	18.05 ± 6.04		
Breastfeeding Education	Yes	128	17.35 ± 6.18	0.375	0.541
	No	77	18.05 ± 6.05		

Table 3. Breastfeeding knowledge score

Subcategorized areas	Item	score	Total	Medicine major	Non-Medicine major
Anatomy and physiology of lactation	10	0 ~ 10	2.64 ± 1.54 ¹⁾	3.00 ± 1.67	2.41 ± 1.42
Benefit of breastfeeding	5	0 ~ 5	3.34 ± 1.42	3.11 ± 1.26	3.49 ± 1.50
Contraindications and barriers to breastfeeding	7	0 ~ 7	2.08 ± 1.13	2.38 ± 1.27	1.90 ± 0.99
Initiation of breastfeeding	3	0 ~ 3	0.58 ± 0.62	0.65 ± 0.64	0.53 ± 0.61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ore nipples	5	0 ~ 5	0.80 ± 0.93	1.10 ± 1.03	0.61 ± 0.81
Assessments of the breastfeeding infant	11	0 ~ 11	4.34 ± 1.83	4.22 ± 1.93	4.41 ± 1.77
Use of breastfeeding aids	4	0 ~ 4	1.09 ± 0.89	1.21 ± 0.96	1.02 ± 0.84
Management of special situations	8	0 ~ 8	2.36 ± 1.38	2.62 ± 1.44	2.19 ± 1.32
Expression and storage of breast milk	3	0 ~ 3	0.31 ± 0.55	0.55 ± 0.70	0.17 ± 0.38
Total mean of correctly answer percent	56	0 ~ 56	17.51 ± 6.13	18.76 ± 7.07	16.17 ± 5.27

1) Mean ± SD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671, p = 0.503$). 학년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는 1학년이 29.58(± 2.83)점, 2학년 30.96(± 3.06)점, 3학년 30.24(± 4.61)점, 4학년 30.61(± 3.9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0.975, p = 0.406$). 종교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는 종교 없음이 30.43(± 3.27)점, 기독교 30.00(± 5.36)점, 불교 30.15(± 2.87)점, 천주교 30.24(± 3.07)점, 기타 32.50(± 2.6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0.438, p = 0.781$). 성장기 모유수유 형태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는 모유수유 그룹 29.97(± 4.05)점, 인공수유 그룹 31.95(± 2.98)점, 혼합수유 그룹 30.35(± 3.10)점, 모르겠다는 그룹이 28.26(± 5.2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2.024, p = 0.112$). 주변사람이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는 경험이 있는 그룹이

30.12(± 3.95)점, 경험이 없는 그룹이 30.66(± 3.2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797, p = 0.426$).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유무에 따른 태도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이 30.15(± 3.25)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그룹이 30.38(± 4.4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405, p = 0.686$) (Table 5).

4.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수 $r = 0.340$ 로 지식과 태도간에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01$).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의 인지적 관점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 = 0.339, p < 0.01$)를 나타내었으며, 지식의 하부영역에서 모유수유 시도, 특별한 상황관리, 모유짜기와 보관의 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의 정서적 관점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r = 0.076, p = 0.05$), 지식의 모든 하부영역과 태도의 정서적 관점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의 실제적 관점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 = 0.343, p < 0.01$)를 나타내었으며, 지식의 하부영역에서 모유수유 시도, 유두동통의 예방과 관리, 특별한 상황 관리의 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영역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6).

Table 4. Breastfeeding attitudinal variables for female students

	Actual Range	Items	Total score	Mean ± SD
Perception	0 ~ 14	7	10.87 ± 1.49 ¹⁾	1.55 ± 0.37
Emotional	0 ~ 12	6	9.06 ± 1.64	1.51 ± 0.52
Practical	0 ~ 14	7	10.33 ± 1.90	1.47 ± 0.53
Total	40	20	30.26 ± 3.81	1.51 ± 0.47

1) Mean ± SD

Table 5. Differences in breastfeeding attitud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Mean ± SD	t or F	p
Major	Medicine	76	30.48 ± 4.86	0.671	0.503
	Non-Medicine	128	30.10 ± 3.05		
Grade	1st	61	29.58 ± 2.83	0.975	0.406
	2nd	25	30.96 ± 3.06		
	3rd	73	30.24 ± 4.61		
	4rd	44	30.61 ± 3.91		
Religion	No	67	30.43 ± 3.27	0.438	0.781
	Protestant	54	30.00 ± 5.36		
	Buddhism	42	30.15 ± 2.87		
	Catholic	36	30.24 ± 3.07		
	Other	4	32.50 ± 2.65		
Subject-own Feeding Type	Breastfeeding	124	29.97 ± 4.05	2.024	0.112
	Milk-feeding	31	31.95 ± 2.98		
	Mixed-feeding	49	30.35 ± 3.10		
	No-memory	8	28.26 ± 5.21		
Breastfeeding Observation	Yes	161	30.12 ± 3.95	-0.797	0.426
	No	44	30.66 ± 3.23		
Breastfeeding Education	Yes	128	30.15 ± 3.25	-0.405	0.686
	No	77	30.38 ± 4.49		

Table 6. Correlation between breastfeeding knowledge and attitudes score of subcategory areas

Category	Total Knowledge	Sub1	Sub2	Sub3	Sub4	Sub5	Sub6	Sub7	Sub8	Sub9
Total attitude	0.340**	0.186*	0.235**	0.139	0.001	0.158*	0.250**	0.214**	0.140	0.127
Perceptual aspect	0.339**	0.171*	0.143*	0.200**	0.036	0.215**	0.243**	0.220**	0.119	0.060
Emotional aspect	0.076	0.064	0.098	-0.036	-0.004	0.010	0.048	0.109	0.038	0.023
Practical aspect	0.343**	0.176*	0.278**	0.171*	-0.036	0.101	0.269**	0.151*	0.138	0.194**

sub1 = Anatomy and physiology of lactation; sub2 = Benefit of breastfeeding; sub3 = Contraindications and barriers to breastfeeding; sub4 = Initiation of breastfeeding; sub5 =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ore nipples; sub6 = Assessments of the breastfeeding infant; sub7 = Use of breastfeeding aids; sub8 = Management of special situations; sub9 = Expression and storage of breast milk. *: $p < 0.05$, **: $p < 0.01$

고찰

우리나라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이유는 지식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 모유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모유수유를 선호하고 모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5; Kang 1999). 또한 결혼 전 여성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습득의 기회가 적어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어 결국 모유수유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Wambach & Cole 2000; Yeo 2005). 실제 모유수유 지식정도를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유수유 관련 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arah & Diana 2004). Kim (1998)의 연구결과 임신부 대상 모유수유 지식정도에서 1.00점 만점에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0.65로 나타났으며, 의료요원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Kim & Lee 1995)에서도 정답율이 46%로 모유수유 지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는 17.51(± 6.13)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상자 전체의 정답률은 30.5%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 정답률을 보면 모유수유 이점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유짜기와 보관은 1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차 어머니가 되어 모유수유를 하게 될 여대생들이 모유수유의 이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 외 모유수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유수유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모유수유 태도에 따른 문항별 점수는 총 40점 만점에 30.26(± 3.81)점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태도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눈 측면으로서는 인지적 관점이 1.55(± 0.37)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정서적 관점이 1.51(± 0.52), 실제적 관점이 1.47(± 0.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Jeong(1997)가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영역간 나타난 순위를 비교해보면 같은 순위의 결과로 나타났다. 인지적 관점에서는 점수가 높는데 실제적 관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어머니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모유수유의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주는 책임감과 그로 인한 불편함과 제한에서 자유롭고 싶은 양가감정이 실제적 관점의 모유수유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모유수유 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유수유와 관련된 정서적이고 실제적 측면의 태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Mariorie 등 1998; Greene 등 2003)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수가 $r = 0.340$ 으로 지식과 태도간에 정의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식의 하부영역 중 모유수유의 금기 및 저해요인, 모유수유 시도, 특별한 상황 관리, 모유짜기와 보관은 모유수유 태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인 여대생이어서 아직 모유수유의 경험이 없는 연고로 특히 이들 영역의 지식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식의 모든 영역과 태도의 정서적 관점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측면의 지지를 할 수 있는 교육 이외의 다른 방향의 간호중재 및 접근이 필요하다.

요약 및 결론

한국여성의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식수준별 교육 및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해 조사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차 모유수유 동기가 생겨 모유수유를 결정하게 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보건 등의 학계, 비의학적 관련 전공별 등 주요관련 변수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여대생을 위한 모유수유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 인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여대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에서는 모유수유 이점, 모유수유 신생아의 사정, 모유수유 금기 및 저해요인, 특별한 상황 관리, 모유수유 시도, 모유수유 보조 기구의 사용 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두동통의 예방과 관리 모유짜기와 보관 등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당면할 수 있는 모유수유 시 실제적인 문제 해결법 측면에서의 지식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모유수유 지식이 의학적 여대생이 비의학적 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통해 유추할 때 의학적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올바른 모유수유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 방법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육에서의 여대생을 위한 모유수유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예비 부모교실과 산전관리교육시 여대생들을 위한 실제적인 모유수유 실천측면에서의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Goulet C, Lampron A, Marcil I, Ross L (2003): Attitudes and subjective norm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oward breastfeeding. *J Human Lactation* 19(4): 402-10
- Greene J, Stewart-Knox B, Wright M (2003): Feeding preferences and attitudes to breastfeeding and its promotion among teenagers in Northern Ireland. *J Human Lactation* 19(1): 57-65
- Houston MJ (1986): Breastfeeding, fertility and child health : a review of international Issues. *J Adv Nursing* 11(1): 35-40
- Hyun TS, Kim KN, Kang NM, Lim EY (2001): Prenatal breastfeeding education and infant feeding practices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baby-friendly hospitals. *Korean J Community Nutr* 6(4): 678-685
- Hyun TS, Kim KN, Kang NM, Lim E (2002): The Economic Benefits of Breastfeeding. *Korean J Community Nutr* 7(6): 863-871
- Jeong GH (1997): Effec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omoting the breastfeeding practice in primipara.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Kang NM (1999): Primiparous Couple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garding Breastfeeding). *Korean J Women Health Nurs* 5(3): 379-388
- Kang NM, Hyun TS, Kim KN (2000a): Breastfeeding Belief and Attitudes of Physicians and Nurses. *Korean J Women Health Nurs* 6(3): 348-357
- Kang NM, Hyun TS, Kim KN (2000b): Breastfeeding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Health Professionals in the Hospitals. *Korean J Women Health Nurs* 6(3): 357-363
- Kang NM, Song Y (2005): Support and Education to Promote Breastfeeding of Korean Women. *Business Education Review* 37(2): 203-216
- Kim, HS (1995): Health care professionals' attitudes, knowledge and confidence on breastfeeding : Metropolitan areas of south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1(2): 243-253
- Kim YH, Lee KD (1995): A study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fant and determinants of obesity. *Korean J Community Nutr* 1(2): 217-223
- Kim, KN, Kang NM, Hyun TS (2002a): A Survey on the Feeding Practices of Women for the Development of a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Korean J Community Nutr* 7(3): 345-353
- Kim, KN, Hyun TS, Kang NM (2002b): Infant feeding practice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feeding practices among women in Seoul and the Chungbuk area. *Korean J Community Nutr* 8(3): 288-301
- Kim, Y (1998): The effects of a breastfeeding campaign on adolescent Korean women. *Pediatric Nursing* May-June 24(3): 235-236
- Leffler D (2000): US high school age girls may be receptive to breastfeeding promotion. *J Hum Lact* 16(1): 36-40
- Martens PJ (2001): The effect of breastfeeding education on adolescent beliefs and attitudes: a randomized school intervention in the Canadian Ojibwa community of Sagkeeng. *J Hum Lact* 17(3): 245-255
- Poverty KM (1991): WIC and promotion of breast-feeding. *Pediatrics* 87(3): 399-400
- Mariorie R. Sable CB (1998): Patton. Prenatal Lactation Advice and Intention to Breastfeed: Selected Maternal Characteristics. *J Hum Lact* 14(1): 35-39
- Sarah K.F.Kong, Diana TF (2004): Factors influencing decision to breastfeed. *J Adv Nurs* 46(4): 369-379
- Yeo, JH (2005): Influencing Factors in Breast Feeding Dura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2): 142-147
- Wambach, KA, Cole C (2000): Breastfeeding and Adolescents.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9(3): 282-294
- Williams, EL, Hammer LD (1995): Breastfeeding attitudes and knowledge of pediatricians-in-training. *Am J Prev Med* 11(1): 26-33